

‘우울한 한국’ 하루 38명씩 극단선택...OECD ‘최고 자살률’



작년 한 해 동안 하루 평균 약 38명 가량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작년 고의적 자해, 즉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는 총 1만3799명으로 전년 대비 0.9%(129명) 증가했다. 1일 평균 자살 사망자 수는 37.8명이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자살 사망률은 26.9명으로 전년 대비 0.9%(0.2명)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상은 사망률 1위가 아니었지만 10~30대는 자살이었다. 특히 20대 사망원인의 51.0%가 자살이었다. 40대와 50대는 사망률 2위가 자살이었다.

통계청은 매년 9월께 극단적 선택 등을 포함한 전년도 사망원인 통계를 발표한다. 올해부터는 시의성 있는 자살예방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잠정치도 처음 발표했다.

당초 통계청의 지난해 극단적 선택 사망자 잠정치는 전년보다 크게 감소한 1만2889명이었다. 그러나 확정치(1만3799명)와는 약 7%의 오차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잠정치는 월별로 접수된 행정 자료로 산출하는 반면, 확정치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건 검증이 완료된 연간 자료를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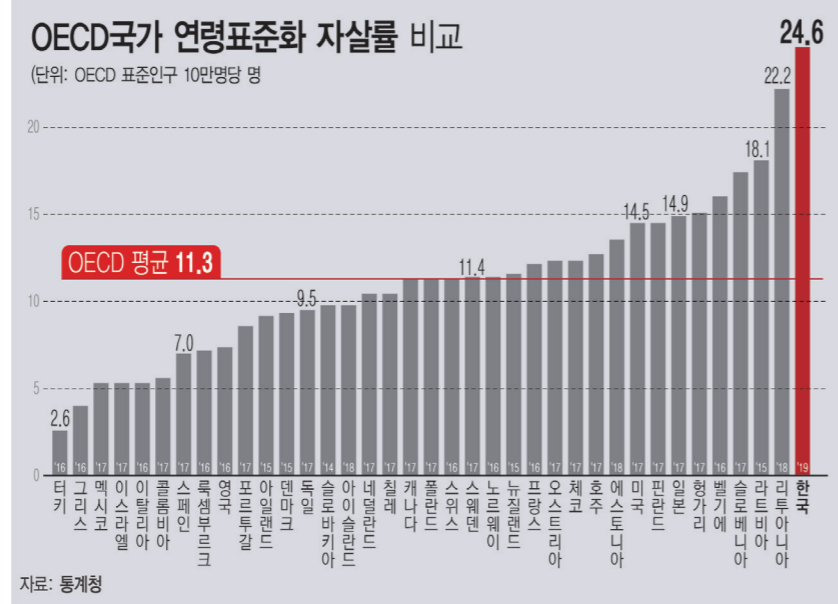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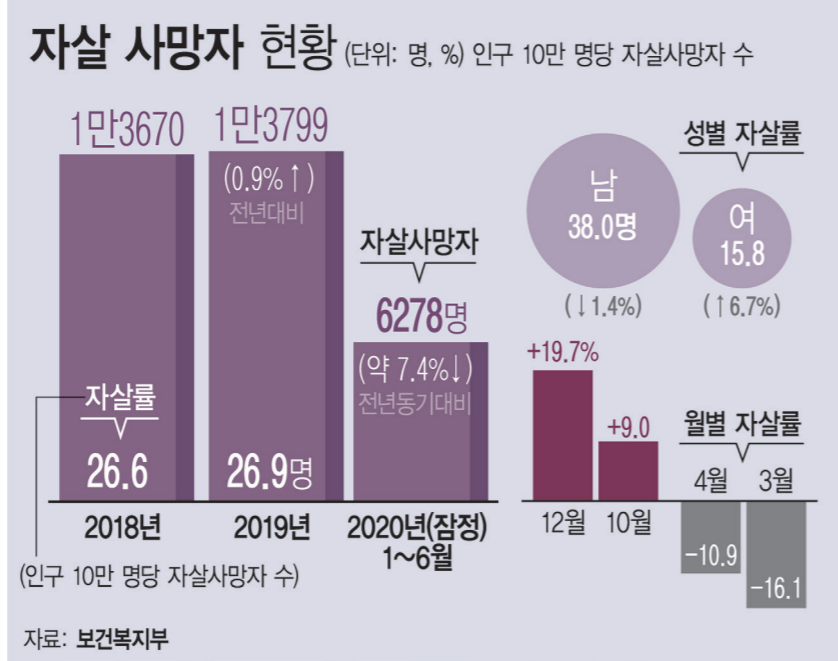
다만 지난해 극단적 선택 사망자 수는 역대 최고치는 아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연간 극단 선택 사망자 수가) 1만4000명 이상인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2011년 1만5900명이 최대였고, 그 때 당시 국회에서 자살예방법 통과 이후 (자살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였다”고 말했다.

인구 10만명 당 극단 선택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자살률은 26.9명이었다. 이는 전년(26.6명)보다 0.2명(0.9%) 늘어난 것이다.

성별로는 남성의 자살률이 38.0명, 여성은 15.8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2.4배 높았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는 남성은 1.4% 감소한 반면 여성은 6.7% 증가했다.

통계청, 지난해 자살에 의한 사망자 총 1만3799명 전년보다 0.9% 증가...잠정 1만2889명서 7% 오차 20대女 전년대비 자살률 높아...“연예인 영향 추정” 정부, 유명인 모방자살 사전 예방 대책 강화 추진



연령대별로는 80대 이상, 70대, 60대, 50대 순이었다. 전년 대비로는 30~50대, 70대, 80대 이상 등은 감소한 반면 20대 이하와 60대 등은 증가했다. 월별로는 10월과 12월이 전년 대비 증가폭이 컸다.

정부는 이 중 전년대비 증가율이 높은 20대 여성의 자살률에 주목했다. 중앙심리부검센터의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중 현재까지 조사된 서울, 경기 등 6개 시·도 자료를 보면 20대 여성 자살률은 지난해 1~9월 평균 25명 안팎이었으나 10~12월 평균 43.7명으로 74.7% 급증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자살은 사회구조,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주된 요인을 어느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다”면서도 “10월 이후 급증은 유명 연예인의 자살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유명 아이돌 가수 설리에 이어 11월 구하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자살예방협회(IASP)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추가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유명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모방 자살 효과가 더 커진다고 이들 기구는 지적하고 있다.

이는 국내 연구 결과에서도 비슷하게 조사됐다.

2015년 국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유명인 극단 선택 사건으로 인한 모방 효과는 하루 평균 6.7명으로 집계됐다. 유명인의 특성에 따라 가장 큰 경우에는 하루 평균 29.7명까지도 나타났다.

정부는 일단 이 같은 20대 여성의 자살 증가와 관련해 기존 자살예방 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유명인의 모방자살 사전 예방 대책을 강화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연예인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개발 중이다.

심리부검센터장인 삼성서울병원 전홍진 교수가 연예인 매니지먼트 협회, 방송연기자 노조 등의 협조로 연예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예인의 경우 정신건강 상담이 많은데, 접근의 어려

움이 상당히 있다”며 “이에 스트레스 상황 등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정신건강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등을 담아 온라인 배포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아울러 청년구직 및 긴급돌봄 등 지원 대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도 집중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국제 비교에 쓰이는 OECD 국가 간 연령표준화 자살률(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

망자 수)을 보면, 2018년 기준 OECD 평균은 11.3명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24.6명에 달한다. 이는 미국(14.5명), 일본(14.9명)은 물론 2위인 리투아니아(22.2명)보다도 2.4명이나 많은 수치다.

※정신적 고통 등을 주변에 말하기 어려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자살예방 핫라인(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뉴스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정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